

02 보도 학생식당 얼마나 이용하나?

03 사회 세월호 참사, 대학생들 거리로 나서다

05 사람만 안전형 다큐멘터리 감독을 만나다

06 학술 온 국민이 슬픔에, 외상 후 스트레스

07 기획 대학밖의 또다른 대학을 찾아서



▲ 대동제가 개최되지 않아 텅 빈 운동장과 한쪽에서 진행된 2014 사랑의 나눔 행사 중 '우가게' 부스의 모습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동제 개최되지 않아 2014 사랑의 나눔 행사로 애도물결 동참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으로 뒤덮은 사건이 발생했다. 진도 부근의 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와 학교의 모든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본교 역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되었던 대동제를 전면 취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그 대신 '2014 사랑의 나눔 행사'로 대체되었다. 2014 사랑의 나눔 행사는 우리들의 작은 가게(Pitapattin

day), 한힐 및 한힐즈 기부, 카네이션 판매, 학생식당 이벤트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사로 얻어진 수익금은 모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 계획했던 것 중 유일하게 진행되었던 우리들의 작은 가게(이하 우가게)는 7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학생들은 해나, 팔찌, 음식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운동장 옆 미래관 사이 길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물품을 판매했다.

한힐 및 한힐즈 기부는 장의관 앞에서 8, 9일 양일 간 진행되었다. 7, 8일 이틀 간 장의관 앞에서 실시된 카네이션 판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을 구매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판매했다. 또한 8일 하루 동안 학생식당 메뉴 27가지(한식, 양식)를 2500원으로 하향조정해 판매했다. 이종혁(정통 4) 총학생회장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예전처럼 대동제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며 "뜻깊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종혁 총학생회장은 "2014 사랑의 나눔 행사로 얻어진 수익금은 모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관심이 쏟아져 희생된 일반인 승객들의 유가족은 소외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에 분석 후 수익금 사용을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종합관이 건축되기 시작하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대동제 개최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 축제무산은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지만, 슬픔에 동참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한성대, 참교육대상 수상해



▲ 2014년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을 수상한 강신일 총장(왼쪽)의 모습

지난 달 10일 한성대학교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산학협력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교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매년 전국 40여개 이상의 대학을 평가해 분야별로 선정하는 상이다. 대학평가조사, 대학이미지, 브랜드 가치 등의 기초조사를 거쳐 심층분석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발표한다. 이번 2014년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에서는 한성대를 포함해 서강대, 동국대, 영남대 등 총 12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본교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디즈니월드 인턴십 업무경험과 교환학생학점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Disney 인턴십 프로그램, 미국 내 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통해 학점인정 및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ICCEUSA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50여개의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한성 석세스 프론티어 프로그램(Hansung Success Frontier)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신일 한성대 총장은 "이번 수상 영예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앞으로도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성인이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본교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제1회 한성대 영상 토크쇼 개최



▲ 영상 토크쇼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모습

지난 9일 청의관 소강장에서 교양교육부 주최로 제1회 한성대 영상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이번 영상토크쇼는 '비전공자의 영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비전공학생들이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감독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 기획했다. 1부는 안건형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상영을 시작으로 권은혜 평론가가 사회를 맡아 안건형 감독과 함께 '나에게 영화 만들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한성대 영상제 수상자인 한성대 경영학과 박상현 학생의 '트루덕쇼',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김사임 학생의 '기다림의 미학'이 상영 후, 안건형 감독의 사회로 권은혜 평론가와 수상자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공자들만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다림의 미학'으로 수상한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김사임 학생은 전공의 영향에 대해 "영문과는 문학을 다루고, 문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도 이번 작품에 인생의 딜레마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제작과정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어 비전공 학생들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 비전을 제시했다. 수상작 '트루덕쇼'의 한성대 경영학과 박상현 학생은 "주변 인맥이나 영화제작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비전공자들도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제 집행위원 김기욱 교수는 "이번 토크쇼를 계기로 내년도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와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쇼를 기획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태미 수습기자 taem14@hansung.ac.kr

본교 2016년까지 정원의 4% 감축하기로 계획 밝혀

현재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계획이라는 커다란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대대적인 정원감축을 계획했다. 이에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CK-II) 마감과 동시에 대학가는 정원 감축률을 두고 시름시름했다.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특성화 사업 선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은 ▲ 4~7% 감축 3점 ▲ 7~10% 4점 ▲ 10% 이상 5점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들은 4~7%, 지방 대학은 7~10%로 입학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이번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단 신청에서 입학정원의 4%를 감축할 것으로 밝혔다. 본교는 입학 정원감축에 있어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학과는 정원의 3%, 그렇지

않은 학과는 4.2%~5.3%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원감축 가운데 야간학과와 경우 정원 감축의 50%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돼 야간학과가 존재하는 대학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의 경우 일

지만 이러한 정책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임은희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은 "이전의 대학 정원 감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야간학과를 축소하는 것이 추세였다. 당시에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 맞이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공론이 형성되지 못한 채 졸속으로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시되고 있다. 경기대, 서일대, 남서울대 등의 경우 학과 통폐합을 학교본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른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명시했다. 과연 이를 준수하는 대학이 몇몇지 의문인 가운데, 이 문제를 단순히 학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교육부의 정책들이 상당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의 다양한 평가와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내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학교 본부 측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졸속적인 학과 통폐합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야간 정원 감축의 경우 50%만 인정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교육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

부 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야간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교육부는 야간 입학 정원의 경우 산업체 근무자 등의 계속교육기회 제공 등을 고려해 50%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기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정원감축에 있어서 야간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주간학과로 전환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

다시 말해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관성이 부재한 정책상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장영우(기획전략팀) 팀장은 "본교 역시 교육부 관계자에게 불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차이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런 바 있다. 우리학교는 어떻게?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학교의 구조조정 계획은 묵묵히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당장 급박한 학과 통폐합은 없기에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정원 조정 계획안>에서 학과 통폐합 및 모집단

학교 이용률 시리즈

단 하나뿐인 학생식당, 당신은 만족하시나요?

재학 중 학교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본교 여러 부서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다. 이런 프로그램과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 이용률 시리즈'를 기획했다. 두 번째 기획은 '학생식당 이용률'과 더불어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당신은 어디서 식사를 하는가? 대부분의 본교 학생이라면 학생식당을 한 번쯤은 이용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본교에는 주변 타대와 다르게 학생식당이 장외의 한 곳에만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 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생식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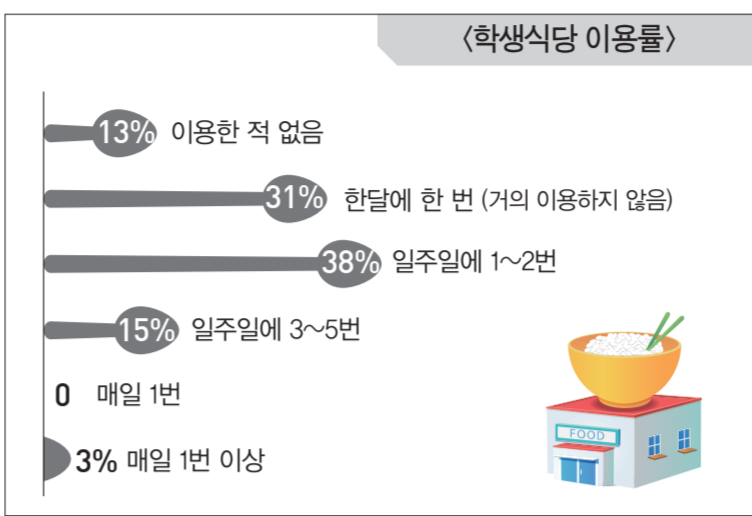
중 인문대학 33명, 사회과학대학 68명, 예술대학 15명, 공과대학 49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60%(소수점 셋째자리 수 반올림)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1번 이상 학생식당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학생식당을 이용한 적 없거나 한 달에 한 번(거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한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40%에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 50%의 학생들이 '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위 학생들은 학생식당 대신, 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임우나 영양사는 "개개인의 입맛이 달라 맞추는 것은 힘드니 말이다. 하지만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의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만족'은 합쳐 18.1%, '매우불만족'과 '불만족'은 합쳐 44.3%, '보통' 37.6%를 기록했다. 만족과 불만족으로만 보았을 때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학생식당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운영시간을 늘리고, 메뉴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 학생들의 학생식당 이용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많았다. 작년 2학기부터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바뀐 학식에 대해 만족이다', '전 업체의 시스템보다 낫다' 등 학생식당을 칭찬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찬가지 수가 너무 적다', '이전에 있던 분식이 없어 아쉽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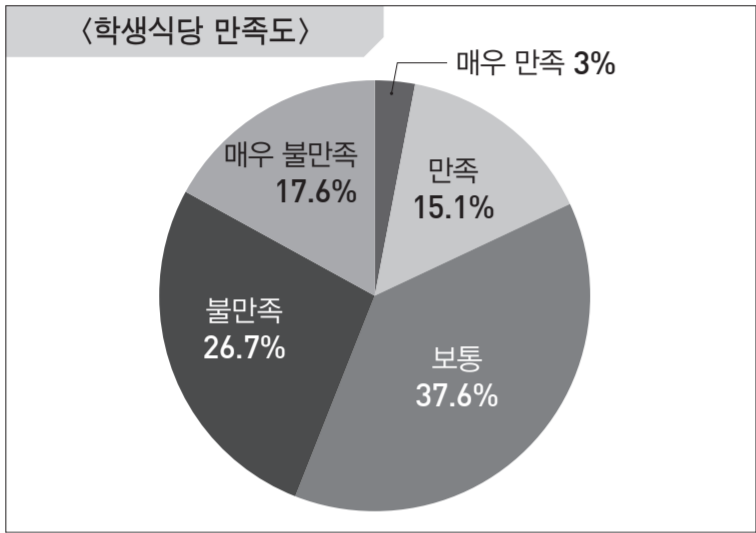
전 업체와는 달리 현재 학생식당에는 학생들이 식당 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뿐이다. 임우나 영

양사는 "현재 학생들이 식당에 의견을 제시할 곳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 고개의 소리를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학생식당 측에 의하면 현재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평균 5~600명(수라상 제외)이다. 앞으로 식당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불만사항들을 개선해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식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 설문조사 중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 학생들의 학생식당 만족도.

간추린소식

제 9회 한성교내 영어 스피치 대회

오는 15일까지 영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 9회 한성교내 영어 스피치 대회' 본선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본선대회는 5월 21일 10시에 진행된다.

영어 스피치 대회는 A4 2장 이내로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제시하는 대회이다. 영어실력에 관계없이 한성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진솔(Hansung Today)편집국장은 "본 대회로 한성대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실력을 발휘하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바란다. 본교 학생 중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교내 영어 스피치 대회에 참여해 자신의 영어실력을 뽐내고 또 배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사는 원외인 교수가 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스피치 원고를 바탕으로 예선심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본선대회 일정 이 변경될 수 있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1명(20만원)으로 이루어진다.

문의는 영자신문사(02-760-4195) 또는 이진솔 편집국장(010-5067-1231)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종근 교수, 몽골 후레대학교에서 몽골통신현황에 대해 특강 실시

오종근 교수는 지난 4월 22일 몽골의 후레정보통신대학교(이하 후레대학교)에서 '몽골 정보통신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특강은 정보통신에 관한 강의로는 후레대학교에서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몽골 정보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 전문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특강에서 오종근 교수는 몽골 정보통신의 기본정책과 7대 전략, 관련 정부기관의 구조 및 역할관계, 이동통신, 인터넷, CATV 등 주요 서비스 현황, UN에 의한 정보통신 발달지표 등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몽골 통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통신 서비스 영역 및 동능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강 이후 오종근 교수는 후레대학교의 국제교류처장인 안장교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후레대학교와 한성대학교 간 학생교류,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 실시

오는 6월 30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무료 건강검진은 교내가 아닌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진행된다.

작년 교내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은 4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두 달 동안 진행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하나로 의료재단으로 전화(02-590-1111)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원하면 된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여분이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 주의사항으로는 ▲검사 전 8시간 금식할 것 ▲검사 1~2일전부터 음주 및 고지방, 피로 등을 피할 것 ▲산본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등이 있다.

건강관리실의 권우진 주임은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정란

공호근(산학협력단) 교수 공 교수는 지난 4월 9일 한국소공인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4월 21일 기상청 개방형 공모직위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4월 23일 서울특별시 학술운영심의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4월 24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교직과 '심성 교육특강' 진행해



▲ 김형석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지난 4월 21일 미래관 ELC에서 교직과 심성 교육특강이 진행되었다. 교직과의 심성 교육특강은 교직이수중인 본교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심성 교육특강 시작에 앞서 교직과 신재홍 교수는 "교육적 특성을 지닌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교직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교직과 학생은 특강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덕목을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

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김형석 교수가 강의했다. 김형석 교수의 유쾌한 진행으로 특강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위대한 선생님의 조건'이었다. 강연을 진행한 김 교수는 "진정으로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이다"고 설명했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교내 흡연문제 학생들의 의사표출과 학교의 '흡연구역' 홍보 필요해

지난 4월 3일 '낙산의 메아리'에 교내 흡연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축구의 글이었다. 교내 흡연 문제는 매년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로 충돌되었다.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모든 학교의 교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시설지원팀은 흡연자들을 위해 '담주관 뒤 공터', '종문 앞', '공학관 B동 옆 주차장' 세 곳을 공식적인 흡연구역으로 지정(작년 5월)했다.

흡연구역지정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흡연구역 외 교내에서 흡연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성대신문사는 '교내 흡연구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와 흡연자의 흡연구역 이용 빈도', '비흡연자의 인식', '흡연구역 외에 흡연 장소'에 대해 조사했다. 설문에는 흡연자 27명, 비흡연자 73명이 참가했다.

설문에 응답한 27명의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이용 빈도'에 66.67%의 학

생들이 '매번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의 수가 너무 적다', '쉬는 시간에 흡연을 위해 멀리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쉬는 시간마저 흡연구역을 이용하기 힘들다', '같은 장소라도 흡연구역을 더 설치해야 한다', '이 넓은 캠퍼스에 흡연구역이 3곳밖에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정도영(시설지원팀) 주임은 "보통 흡연구역과 같은 학생 편의시설 설치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논의된다. 공학관 흡연구역은 공과대학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며 "흡연구역의 추가설치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학생자치기구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비흡연자용 설문인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가?'에 87.67%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비흡연자 A학생은 "각 벤치 등의 비흡연구역 장소에는 '금연구역'이라고 붙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과 '비흡연자들은 교내흡연에 민감하다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교내 흡연구역을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다(58%), 모른다(42%)로 교내 흡연구역에 대한 인지가 미비했다.

이에 정도영 주임은 "현재 흡연구역은 시범적인 운영단계다. 때문에 한 성공지를 통해 알렸다"며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결국 교내흡연문제는 '흡연자의 비흡연자를 위한 배려' 혹은 '학생회를 통한 학생의사 표출'이 중요한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의 흡연구역 홍보가 우선시 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신성석 기자 123607@hansung.ac.kr

2014학년도 후기(정시)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전형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2014.5.12(월) 10:00 ~ 5.19(월) 17:00	우웨이 http://www.uwayapply.com - 100%인터넷접수 (우편·방문접수 불가) - 접수 시작일과 마지막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지원 가능	▶ 수험표는 출력하여 구술·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외국인유학생은 접수전에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에 입학상담을 한후, 접수하여야 함
서류 제출	2014.5.19(월) 17:00마감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교학팀 (학술관 208호)	▶ 출력원서 및 구비서류를 동봉 ▶ 방문, 등기우편, 택배 제출
구술면접 전형	2014.5.24(토) 10:00 ~	전행일 전날 대학원홈페이지 공고 및 각 학과에서 지원자 개별 통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 ▶ 구술면접전형 시간 최소 10분전 도착
합격발표	2014.6.11(수) 14:00 ~	본 대학원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합격자조회메뉴	▶ 수험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격자 조회
등록금 고지서출력	2014.6.19(수)	본 대학원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합격자조회메뉴	▶ 수험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2014.6.19(목) ~ 6.27(금)	등록금고지서상의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합격후 등록기한내에 미등록시 입학포기자로 간주하여 자동 불합격처리됨

* 대학원·학과(전공)에 따라 전형 일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개별 안내)

◎ 모집학과 및 전공

(1) 일반대학원 (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 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일반 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행정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석사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예·체능계	학과간 협동과정	회화과
			정보컴퓨터공학과				무용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사회학과		영미문화학과		문헌정보학과		

* 모집인원은 각 학과 ○명/○명

(2) 특수대학원 (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경영 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행정 대학원	석사	사회계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예술 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미술행정학과
			미악알콜학과
국방과학 대학원	석사	사회계	패션디자인기획학과
			뷰티예술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안보전략학과
			국방경영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국방M&S학과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및관리전공, 지적및토지관리전공

* 모집인원은 각 학과 ○명/○명
*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1급, 상담전문가 1급,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

◎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학술관 208호) ☎ 02)760-4271
▶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구비서류 및 전형 세부사항 확인)

▶ 편입학/재입학의 경우, 해당 대학원 학과(전공) 사무실 또는 대학원교학팀으로 별도 문의후 접수
- 편입학/재입학 여적이 있고 지원 가능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석사), 행정대학원(행정, 사회복지, 미악알콜), 예술대학원(패션디자인기획, 뷰티예술), 부동산대학원

대학가,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잠기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세월호 안에는 아직도 실종자들이 갇혀있고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추모집회를 열고 정부의 무능한 초기대처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대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애도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홍대입구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침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는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일반 시민들도 일부 보였다. 검은색의 옷을 입고 노란색 리본을 단 국화꽃을 한 송이씩 든 그들은 저마다 '가만히 있으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한 침묵행진을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제안자 용혜인(경희대학교 4) 학생은 "우리들은 한국에서 항상 가만히

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 침묵행진을 제안했습니다"며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러진 자유발전 시간에서 한 청년은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체육관이 붕괴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 왜 우리는 지난 사건에서 배운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잠시 애도하지만 할

을 비켜주었고 침묵만이 흘렀다. 재잘거리며 지나가던 여고생들도 잠시 말을 멈추고 가게를 홍보하던 상인들도 조용해졌다. 침묵행진은 홍대입구를 출발해 명동을 거쳐 시청까지 계속되었다.

용혜인 학생은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물론 4년 내내 스펀지라도 졸업 후 취직이 어려운 시대이기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변화하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언제나 청년들이 나설 때 사회가 바뀌었다"고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용혜인 씨가 제안하는 침묵행진 이외에도 대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정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침묵행진,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거나 이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진도에 내려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각종 구호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정부의 미숙한 재난대처,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 생긴 저속한 자본주의, 개개인의 책임회피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대참사이다.

훗날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한 순간의 사고로만 치부하고 방관한다면 제 2, 제 3의 세월호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세월호 추모와 함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메이데이' 혹은 '노동절'이라고 불린다. 이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들의 휴일이다. 근로자들은 매년 '근로자의 날'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절 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민주노동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취재했다.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추모를 함께하고자 박수대신 '투쟁'이라는 구호로 통일했다. 이 대회는 서울 1만 여명, 전국 5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애도와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분노, 박근혜 대통령 책임 촉구'라는 성격을 가지는 대회였다.

노동절 대회는 추모목념을 시작으로 추모와 생환기원공연, 세월호 참사관련 발언, 추모 시낭송, 규탄-투쟁 발언, 편지글-호소글 낭송 등을 진행했다. 세계노동절대회라 함은 주로 '장시간 노동', '인권 유린', '최저임금의 비지급' 등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지만, 이번 대회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근로자들의 권리와 기업들의 권위를 비교하며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모였다면 이랬을까...'라는 맥락의 발언과 호소문이 주를 이루어, 보통의 노동절대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대회를 지켜보던 김경호(대학생, 25) 시민은 "서울역을 지나가다 발길을 멈추고 지켜보게 됐다.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이야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숙연



▲ 상, 하 - 민주노동회에서 주최한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 모습

한 마음뿐이다"고 전했다. 이날 요구안은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연금개혁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무쟁취 ▲장시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공공기관 거짓 정상화 저지 ▲산업안전 원형책임 강화,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TPP 저지 등 11가지 사항이 있었다.

'2014년 세계노동절대회'는 대회를 끝으로 구호를 외치며 시청광장까지 이어갔고, 시청광장 합동분양소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대회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축제 취소와 추모집회 등 자발적 움직임 계속 돼

있으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딱 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대학에 들어오니 취직을 잘해라와 같은 말들입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는 의미로 함께 모여 희

만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있는다면 나중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고 외쳤다. 발언을 들던 몇몇 참가자들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유발전시간이 끝나고 그들은 조용히 침묵행진을 시작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들이 지나가자 홍대에 복적이던 사람들은 조용히 걸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사회를 보다

대학생이 무관심한 대학구조개혁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대학가 최대의 화두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였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인해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이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구조조정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학과의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이 필요성이 떨어지는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과 통폐합의 방식이 한참 잘못되었다.

대학이 통폐합 대상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떠한 교육적·사회적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취업률'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강요하며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일절 묵살하고 있다. 각종 퍼포먼스를

펼치고, 시위를 하며 총장실을 점거해도 학교본부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이 자행되고 해당 학과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대학생들은 그저 동정의 시선만 보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관심 역시 저조하다. 아무리 각종 언론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학교본부가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정작 학생들은 대학구조개혁이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평가를 통해 성적이 낮은 학교는 퇴출될 것이라는 것 외엔 아는 바가 없다. 또한 본인이 소속된 학교가 대학구조개혁에 대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학생의 대의기구인 학생회 역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학교의 기업식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결국 자퇴를 결심한 중앙대학교 김창인 씨 역시 자퇴 선언문에서 "이제 학생회는 대의기구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다. 간식을 나눠주고 축제는 화려하게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권리 침해에는 입을 닫았다. 학과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폐교되고 청소년 노동자들이 부당하다"라며 꼬집었다.

이렇게 방관만 하다가는 언제 자신의 학교가, 더 나아가 학교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폐합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이 구조개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 본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학생과 학교본부가 서로 격려하며 구조조정에 대처하는 것만이 가장 민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직업, 경제와 통(通)하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은 공무원만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이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 역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역시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1위는 공무원이다. 그야말로 대세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무원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높은 고용 안정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공무원 이외에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선생님, 간호사, 약사 등이라는 사실에서도 공무원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공무원과 이와 유사한 앞

서 열거한 소수의 직업뿐인가? 사실 직급의 상황은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등에 너무 많은 구직자들이 몰리다 보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어느 구직정보보다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이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진짜 안정적인 직업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답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못 알아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공무원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적 실업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평생이 보장되는 공무원 연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이러한 장점은 굳이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다. 교육기관 소

속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높은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학연 등에 너무 많은 구직자들이 몰리다 보니,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일부 병원에 취업할 경우 얻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 이외에 공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관심 또한 높다. 이들이 공기업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많은 공기업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기업 재직자들의 높은 고용 안정성은 독점적인 지위로부터 창출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는 일부 사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병뚜껑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두 곳뿐이었

다. 주세법 제44조'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들은 술병에 납세증지를 첨부하거나 자동계수기 혹은 국제청이 지정된 업체로부터 납세명명개를 구입·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청은 술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주류업체의 탈세를 막기 위해 주류 제조업체와 병뚜껑 제조업체를 의도적으로 분리하였다. 즉, 정부의 필요에 의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다른 아닌 삼향염관과 세왕금속공업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일 경우, 속칭 꿈의 직장 내지 신의 직장이라 불리워질 만한 숨은 보석과 같은 직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

2014년 제9회 한성민 글쓰기 대회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대회 내용

- 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 목적: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실제 글쓰기 시간 100분
- 장소: 낙산관 대강당
- 문제출제: 대회 당일 현장 공지
- 심사일정: 예심 - 1차 2014년 5월 23일(금) ~ 5월 28일(수)
2차 2014년 5월 28일(수) ~ 6월 2일(월)
본심 - 2014년 6월 3일(화) ~ 6월 5일(목)
- 시상식: 총장실 - 2014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예정)

신청 및 시상

- 신청기간: 5월 8일(목) ~ 5월 21일(수) 오전 9시 ~ 오후 6시 (2주간)
- 신청방법: 1) 사고와 표현 강의 시간에 담당 교수님께 신청
2)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청
3) 사고와 표현 연구실 방문 신청
- 준비사항: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필기 도구(반드시 볼펜 사용)
- 시상 내역 및 상금: 1) 최우수상: 1명 - 상금 50만원
2) 우수상: 4명 - 상금 20만원
3) 장려상: 8명 - 상금 5만원
※ 수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유의사항: 대회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그 친구와의 도시락



교단에서

장철우 교수
(안어교육원)

어린이날, 아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마다 오월이 되면 가슴이 뭉클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는 얼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유난히 왜소하고 키가 작고 얼굴이 하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4학년 때 한 번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학기 초에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숙제나 과제물 때문에 선생님께 자주 불려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그 친구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집중력이 약한 아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것

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자주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한 형님 댁에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 날부터 도시락을 하나 더 갖고 학교에 들고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맛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다닐 만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날부터 그 친구를 위해 조금은 관찮은 반찬을 싸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날 그 친구에게 쑥스럽게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는 고마워하며 앞뒤로 나란히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누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친구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는 점심시간에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해 5월 5일 어린

이날에 학교대표로 착한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고 다른 학교 대표들과 청와대에 초청받아 근사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맛있는 식사를 먹어야하는 사람은 그 친구가 아니었을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에서 어리고 가장 힘이 없었던 시절에 가장 크고 용기 있게 남을 도울 수 있던 만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날부터 그 친구를 위해 조금은 관찮은 반찬을 싸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날 그 친구에게 쑥스럽게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는 고마워하며 앞뒤로 나란히 앉아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5월입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남들한테 넘새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른들이 뿌리는 향수를 짚고 뿌리고 다니곤 하였습니 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짙은 향수냄새 때문에 혼내곤 하셨지만 이제야 저는 그 친구의 향수 냄새가 지닌 의미를 어렵듯이 알 것 같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멘토링, 꿈의 대화



기자수첩

오그림 기자
(무역 3)

사람들은 꿈을 좇는다. 꿈을 좇아 대학을 찾고 자신만의 미래를 꿈꾼다. 하나의 명확한 꿈을 좇는 사람이 있는 한편, '불분명한 꿈' 등의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에 어른들, 소위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기회를 잡아 경험해보라고 말한다. 과거, 나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좇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실시한 '20대 고민사례 및 멘토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진로, 취업 등이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들에게 멘토가 필요했다. 하지만 멘토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학교신문을 통한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멘토를 보다 쉽게 만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본교 신문의 사람면에 '꿈의 대화'란 코너를 기획하였다.

'꿈의 대화'라는 코너는 한가지의 꿈에 대하여, 그 꿈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활동 중인 멘토와, 그 꿈을 꾸고 있는 멘티가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링 기획 기사다. 처음 기획회의 당시, 가장 포부가 넘쳤던 기획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기획을 진행하기 위해 기자들은 짧게는 한두 달을 잡고 멘토를 섭외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 멘토링이 상업화 되어있는 지금,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멘토도 있었고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멘토를 섭외하는 만큼 그들은 비쌌다. 어렵게 멘토를 섭외한 후 이를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멘티를 모집한다. 기자들의 입장에서로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들어달라'는 모집언어에 멘티 모집에 전폭 부응 가슴을 안고 멘티 지원 연락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 역시 순탄

치 않다. 적은 수의 멘티가 지원하고, 나머지 멘토와의 일정이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멘티는 적게는 한 명, 많아야 세 명 뿐이었다. 기자들은 때면 아쉬다.

내가 담당한 '꿈의 대화' 기획 중, 유명 독립제작사인 황정인 '큐레이터'를 만난 적이 있었다. 멘토의 토탈한 입담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만남이 의미 있던 이유는 전적으로 적극적인 멘티 덕분이었다.

앞으로 다음 학기 본교신문에 '꿈의대화'가 지속되어 기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를 기획하는 기자와 노고와 일대일 혹은 소수로 멘토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알아주었으면 한다. 혹시 '꿈의 대화'를 통해 만나고 싶은 멘토의 직업군이 있다면 신문사로 문의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뜨거운 진도의 태양



낙산에 올라

강병조 학생
(영어영문학부 4)

전 국민을 깊은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이 주가 지났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현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책에 희생자 가족들은 청와대를 향하는 등 비난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식의 발언과 일관된 태도로 국민 여론의 큰 공분을 샀다. 심지어 일부 보수라 주장하는 누리꾼 중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희생자 가족들을 향해 '종북몰이'를 하여 파문이 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극단적인 성격의 발언과는 다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 생명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과 가

족들의 '고통' 앞에서는, 그들이 하는 어떠한 비난도 쉽게 간과되거나 묵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은 인간 존엄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혹 그들은 부실한 재난 대책 이전에 그러한 비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꺼이 수용하려는 태도의 상실이 문제일지는도 모른다.

결국 '교육'의 문제로 돌아설 뿐이다.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자신 뿐 아니라 남의 생명 가치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정부 부처나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대학에서 인간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적어도 지금까지 그들의 구조 활동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가치에 대한 이해는 가정과 학교의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취업을 전부로 여기는 요즘의 가정과 대학은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듯하다. 취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가치

나 존엄성 따위는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일췌하다.

최근 우리 대학은 신축 예정인 '종합관(가칭)'으로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 및 교수 등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들머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건물의 확장과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을 위한 인간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으며, 희생자의 아픔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 구조 활동은 진정 위료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오늘도 진도 앞 바다의 태양은 무심히 뜰 것이다. 그리고 뜨거울 것이다. 그 태양은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도 함께 떠있다. 두 손으로 태양을 가리겠는가.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이다.

손 잡아주세요



한성인께

정시원
한성대학교방송국
실무국장
(영어영문학부 3)

며칠 전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나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비웃는 악인 한 명이 죽고 그렇게 2시간이 넘는 긴 영화가 끝이 나더군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며 화면은 페이드아웃 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대입해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저 대사를 듣고 제 머리 속이 갑자기 복잡해졌던 건 아마도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입했기 때문일 겁니다.

별 일이 아니라고, 내 목소리는 세상이 듣기에 너무 작다는 변명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붉게 물든 상처가 그 자리를 채웁니

다. 그 상처가 풀어 터져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 상처가 풀어있다는 거짓조 알지 못하죠. 곧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방송국장이기 이전에 한성대학교 학우이며 한성대의 한 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혼자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에, 또 학교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의독경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우리는 의견을 내세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내기 힘든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고 짚어내는 존재이며 그들이 주축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하나의 자그마한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대학방송국, 나아가 대학언론이 지향해야하는 이상은 사회의 그것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언론보다 학내의 언론이 더 자유롭고 진실 될 수 있는 이유는 학내의 언론과 학우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사회의 변화는 곧 개인의 변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언론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방송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소중함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HBBS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에 반응해주신다면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정성을 다하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것들은 더 부드럽게 변해갈 것입니다. 반드시.

· 사 설 · 지금 대한민국은 부실, 부패, 불감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가슴 깊은 상처를 간직하게 된 것은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심한 분노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이토록 진하게 전달되는 것은 구할 수 있었던 어린 생명들이 눈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잘못이라면 사회를 믿고 어른을 믿었다는 것. 그렇게 구조되길 간절히 바라던 그 순간, 우리는 정작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 우리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목도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똑똑하게 알아버렸다.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믿었던 국가는 단지 추한 권력의 신기루일 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의 돈으로 부실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그저 기억 속에만 잠들어 있었다. 그 기억이 다시 살아왔다. 한때의 부실 공화국이 이제는 건강한 믿음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갈기갈기 찢겨버렸다. 우리 사회에 긍정함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의 올 꿈은 자유정신을 다시 쟁취하겠다는 의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니 대학이 먼저 살아야 한다. 불감의 심장을 도려내고 예민하고 살아 숨쉬는 새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온갖 괴리를 꿰어내는 새 나팔을 장만해야 한다. 대학의 자유정신, 정의를 향한 그 고귀한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가슴 깊은 상처를 간직하게 된 것은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심한 분노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이토록 진하게 전달되는 것은 구할 수 있었던 어린 생명들이 눈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잘못이라면 사회를 믿고 어른을 믿었다는 것. 그렇게 구조되길 간절히 바라던 그 순간, 우리는 정작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 우리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목도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똑똑하게 알아버렸다.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믿었던 국가는 단지 추한 권력의 신기루일 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의 돈으로 부실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그저 기억 속에만 잠들어 있었다. 그 기억이 다시 살아왔다. 한때의 부실 공화국이 이제는 건강한 믿음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갈기갈기 찢겨버렸다. 우리 사회에 긍정함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의 올 꿈은 자유정신을 다시 쟁취하겠다는 의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니 대학이 먼저 살아야 한다. 불감의 심장을 도려내고 예민하고 살아 숨쉬는 새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온갖 괴리를 꿰어내는 새 나팔을 장만해야 한다. 대학의 자유정신, 정의를 향한 그 고귀한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다른 대학은 좋겠다. 일류 기업이 인수해서 지원이 뿔뿔하데' 바야흐로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는 시대다. 기업이 인수한 대학은 이후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전입금을 투자받는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해당 기업의 이름이 붙은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얼마 전 일이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퇴를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두산그룹이 인수 후 대대적인 학과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의 기업식 운영을 반대해 한강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기업식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김창민씨이다. 결국 그는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정의(正義)가 없는 대학(大學)은 대학이 아니기에 자퇴 선언문과 함께 마지막으로 학교와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이 인수한 학교는 철저히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듯 학생들을 탄압했다.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임명제로 바뀌었고, 행정부서 역시 기업형으로 재편됐다.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대대적인 통폐합을 맞이했다.

'경쟁력이 없는' 인문학은 철저히 외면되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만이 살아남는다. 지식의 탐구에 대한 열정은 자본의 논리 앞에서 무력해진다. 이렇게 지식의 상아탑이었던 대학은 철저히 하나의 기

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기업식 변모, 교육부에 의한 구조조정 역시 이와 닮아있었다. 학과와 학교의 경쟁력은 취업률이 되었고 졸업요건은 토익점수가 되었다. 현 사회는 대학이 기업처럼 변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학생회는 흔히 말해 '예전' 같지 않았고, 교수들은 학교의 압박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학교의 건물을 높이이지만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은 학교에서 잠식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여기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재학생에는 학교를 위한 열린 통장이자 졸업후에는 취업을 계산을 위한 지표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의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스펙을 쌓아올리기를 부추기며 교육부의 정책 앞에서 학교의 상징이자 역사의 산물인 학교마저 무기력하게 통폐합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인구에 맞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대학의 본래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맹자는 정의를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바른길'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지금, 진실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낙산만평

성민진(시각영상 4)



꿈의 대화

“훌륭한 다큐멘터리는 삶의 기준을 알려준다”

안건형 다큐멘터리 감독을 만나다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 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 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 할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저녁에 무심코 톤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려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뜨거운 감동이나 빠져서 교훈을 선사하는 다큐멘터리. 이를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과연 어떤 직업일까?

한성대신문 490호 꿈의 대화 코너의 멘토는 안건형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안건형 감독은 현재 본교에서 교양수업 ‘영상정보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기도 하다. 늦은 저녁, 합정역 근처에서 안건형 감독과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는 문준현(시각영상 1), 최현실(시각영상 1) 학생이 ‘꿈의 대화’를 나누었다.

멘토리를 제작할 때에는 다큐멘터리 PD(Production&Director) 역할을 수행하고,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에는 감독(Director) 역할을 수행합니다.

멘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멘토: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과제, 졸업 작품 등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비전공학생들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제작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영화제에 출품해 선정되거나 또는 영화제에 초대되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한걸음 내딛게 됩니다.

또는 프로덕션 회사에서 조연출 등으로 취직해 감독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멘타: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멘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한 작품을 만들 때 어느 순간 불시에 영감이 떠올라서 예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 봤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정한 후,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용이한 소재를 선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주제를 잡게 됩니다.

멘타: 다큐멘터리 제작의 접근성은 타 장르에 비해 높은 편입니까?



멘토: 기술의 발달로 다큐멘터리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들과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카메라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려면 예전엔 촬영 장비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지만, 요새는 손쉽게 제작할 수 있죠.

촬영장비 외에 필요한 스태프 인원 수도 평균적으로 4-5명 정도(물론 다큐멘터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라 다큐멘터리 제작의 접근성은 타 장르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실제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개인들이 많이 출품합니다.

멘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감독님께서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멘토: 일단 제가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부터 흥미가 없는데 남한테 보여주고 호응을 얻기 위

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오히려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지 않거든요. 또, 촬영장비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큰 카메라를 쓰면 화면이 아주 아름답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큰 카메라와 여러 스태프들 앞에서 위축이 돼 자신의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질이 조금 떨어져도 소규모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멘타: 물리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전향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멘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4년 동안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월급을 받는 재미 말고는 아무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정말 이 일을 평생하며 살아야

다는 말인가하는 회의감이 몰려왔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어느 바닷가 마을의 조그만 횡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 촬영을 갔을 때 횡집 할머니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다에 직접 손을 담귀 등에서 미역을 하나하나 떼어내는데, 언제나 손이 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신 70대 어르신들의 낱 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무게와 깊이를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삶을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두어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되었죠.

이전에는 정말 다큐멘터리가 나의 길인가에 대해 반신반의 했었지만 그렇게 첫 다큐를 찍고 난 후, 평생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타: 훌륭한 다큐멘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멘토: 훌륭한 다큐멘터리란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해 알려주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을 한순간만 즐기고 소비하는 일회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들은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안건형 감독에게 다큐멘터리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자 흥미진진한 놀이기구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 2-3명 뿐인 천연염색 장인을 만나고, 고깃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등 다큐멘터리는 그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안건형 감독처럼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뛰어들어 보고 싶은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찾아가보자.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교직원을 만나다

총무인사팀 전장배 팀장을 만나다

교내 최초의
본교 출신
교직원



▲ 총무인사팀 전장배 팀장의 모습

교내에는 여러 행정부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서 곳곳에는 본교 출신의 교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번 ‘교직원을 만나다’에서는 교내 최초의 동문 교직원인 전장배(총무인사팀) 팀장을 만났다.

전장배 팀장은 1984년 본교에 입학해 올해로 30년째 근무 중이며 본교 한국어문학부(당시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다. 전장배 팀장은 “졸업할 당시 총동문회에서 동문 출신을 학교에서 채용하길 권의했고 대학에서 이를 받아들여 졸업과 동시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교내에 입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장배 팀장은 30년 동안 많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학교에 여러 행정부서들이 있는데 학술정보관과 전자계산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에 끌고오 근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서로 꼽은 곳은 학생지원팀(당시 학생과)과 시설지원팀(당시 시설과)이다. 전장배 팀장은 “학생신분에서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학생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학생지도를 담당했으며 당시 데모를 많이 하던 시절이라 학생들과 많은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당시 총학생회장을 했던 친구들이나 운동권 후배들과도 한성대 동문 산악회인 ‘한동산악회’에서 자주 어울려 산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상깊었던 부서인 시설지원팀에 대해 그는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 30대 초 시설과장으로 있던 6년간이라고 생각한다.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학교 일에 매달렸던 만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보람있었던 시절이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뒤편에 위치해 학생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낙산도 전장배 팀장이 시설과장으로 근무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이번 4월 1일부터 총무인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총무인사팀은 직원 인사, 노사관계, 교직원후생복지, 구매계약, 교내의 시설임대에 관한 계약, 행정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구매처도 총무인사팀에서 계약하며 등약 시 사용하는 셔틀버스 역시 총무인사팀에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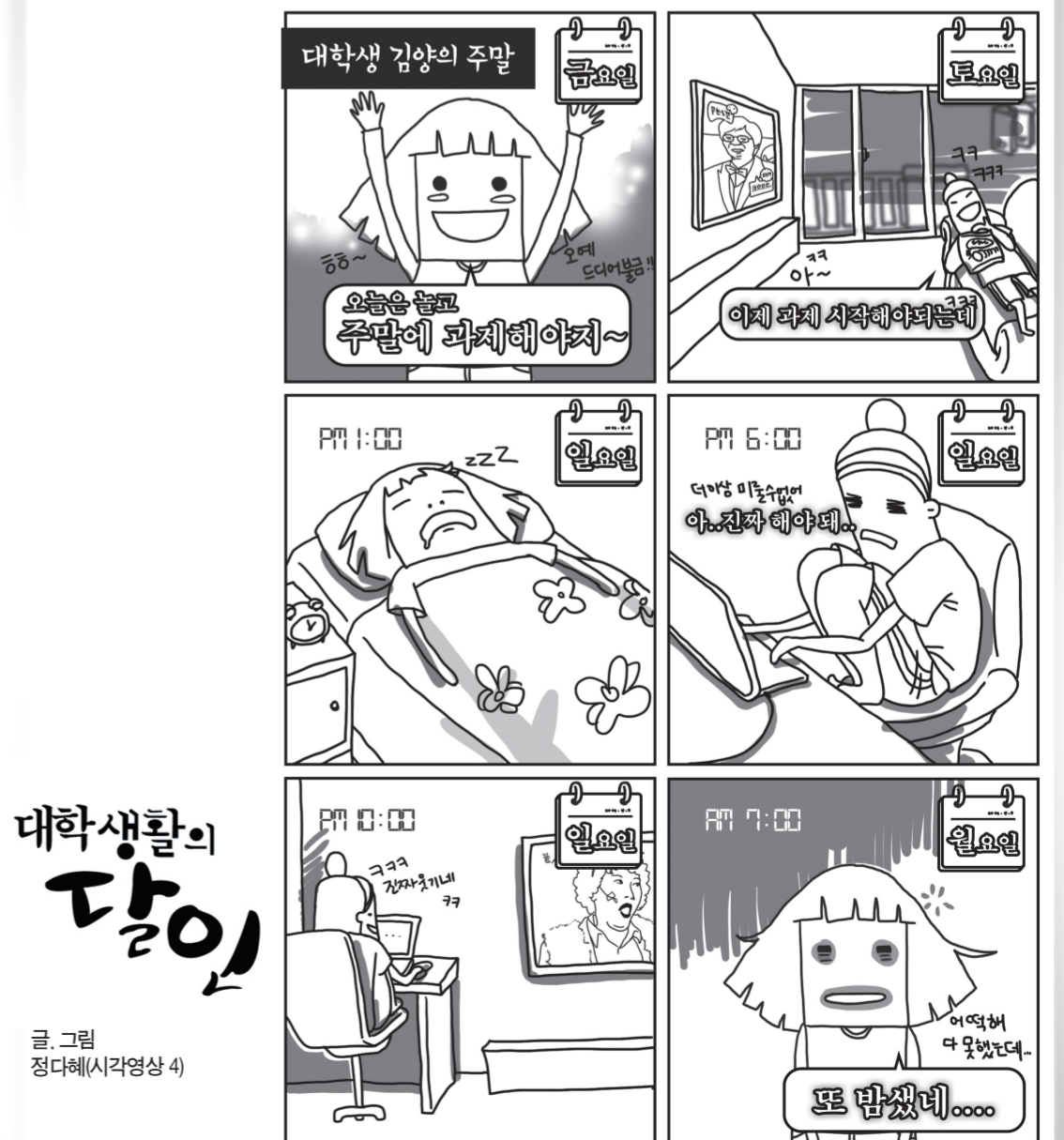
전장배 팀장은 본교와 인연이 아주 깊다. 30년째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학 중 캠퍼스 킥볼로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또한 그의 아들도 2010년 본교에 입학해 현재 3학년이 재학 중이다. 모든 가족이 한성대학교라는 공통분모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8월 말이면 전장배 팀장은 정년퇴임으로 학교를 떠나게 된다. 그는 “동문선배로서 학생지원팀장을 한번 맡아 학생들과 관계를 원만히 가져 서똥똥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지우고 싶는데 아쉽게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전장배 팀장은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평범해진다라는 영국 정치가 크롬웰의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으며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낙산 tōōn



대학생활의 달인

글: 그림 정다혜(시각영상 4)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마주하다

세월호 사고는 꿈 많은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갔기에 더욱더 슬프고 비통한 재난으로 기억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좀처럼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필자 역시 이러한 슬픔에 무기력감을 느끼며 여러가지 감정에 둘러싸여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에 정신적 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신적 외상에도

인간의 뇌는 지나간 일을 소화시켜서 정리하는 작용을 한다. 하루 종일 받아들이는 정보는 잠을 자는 동안 재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은 깊은 곳에 넣어두고, 습득된 지식들은 바로 꺼낼 수 있도록 배치한다. 하지만 이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격을 정신적 외상(Trauma)이라고 부른다.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다. 뇌의 자발적인 방어기제를 넘어 지속적인 증상이 야기되는 것이다.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경험'으로 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회상을 하거나 악몽을 꾸는 증상이다. 두 번째는 관련된 일이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와 관련된 감정 반응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증상이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과민상태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를 과각성이라고 하는데, 소음이나 특정 감각에 예민해져서 날카롭고 섬세한 감정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짜증, 수면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면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발병 초기

에 적절한 약물치료나 단기 정신치료를 실시해서 가능한 빨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이후, 지연형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인다고 별문제 없으려니 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사고의 생존자들을 보고 "발정해 보인다", "사고 당한 애 맞아?"하고 함부로 판단을 내리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받아들일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를 지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버러스는 심각한 질병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죽음이나 암을 받아들이는 데는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이라는 다섯 단계를 거친다는 이론이다. 이별을 하거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실직을 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받아들이고 나아가기 위해 처음으로 겪는 단계는 '부정'이다. 실제로 우리가 사고를 겪으면 실감이 나지 않고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부정으로 발현된다. 시험에 떨어졌지만,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면서도 자꾸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사고를 겪은 모두가 각자 입장이 있고, 충격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다섯 단계 중 어떤 단계를 겪느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일단 무덤덤하게 들어주어야 한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감정을 끌어낼 필요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의 방법일수 있지만, 지지를 받거나 희망을 느낄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여기

에 무턱대고 힘내라거나, 다 잘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대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술을 마시면 일단 말을 하기는 쉬워진다. 하지만 온전한 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감정과 기억의 중추인 변연계가 활성화된다. 기억이 오히려 강화되고 강렬하게 자리 잡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트라우마와 간접 트라우마, 안전지대를 찾아

누구나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픔이 표현되듯이, 회복의 속도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성급하게 회복을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는 태도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을 택해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뒤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사자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간접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전국민이 충격을 공유하게 되었다. 구조에 나선 사람들이나, 이들을 상담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 해야한다. 지금 이곳은 사고현장을 벗어난 곳이며, 안전하다는 것부터 인식이 되어야한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것은 물론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다. 시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만의 안전지대는

무엇인지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무언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는 추억이나 장면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의 품이 될 수도 있고, 연인과 대화했던 장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존재했던 장면이어도 좋지만 상상속의 장면이어도 상관없다.

사고 장면이 자주 떠오르더라도, 나의 안전지대를 강화시켜서 떠올린다면, 충격이 상쇄 될 수 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의 안전지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되도록 편안한 환경,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 하길

외상 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극복한다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는 중에 마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다.

지나간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적 후유증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필자 또한 한동안 놓고 지냈던 책들과 논문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정신적 외상과 유가족 치료에 대해 자료를 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수습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요구해보지도 못한 못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오늘날 수십 번씩 올라온다. 어른들은 죄책감과 무기력감에 젊은이들은 불신과 원망에 빠져들고 있을 것이다. 부디, 대학생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시길 기원한다.



윤 홍균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마포구 공덕동) 역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정회원
- 국제 EMDR협회 정회원 (연구운동을 통한 정신적 외상의 치료)
- 한국 중독 정신의학회 간사

심리심리 심리심리(心裏心理)는 마음 속을 제대로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학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버려야 할 믿음들

다음의 OX 퀴즈를 풀어보자.

- 연인/친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계 유지에 좋지 않다. (OX)
- 좋은 연인/친구라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OX)
- 이미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해 자신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OX)

* <눈치 보는 나 착각하는 너>에서 발췌

이 중 몇 개에 O를 선택했는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의 믿음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즉 위의 문장들에 망설임 없이 O를 선택했을수록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인/친구사이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계유지에 좋지않다?

의견 차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에서부터 '탕수육 소스를 부어먹느냐 아니면 찍어 먹느냐' 같은 사소한 주제까지 성격, 가치관, 살아온 환경들이 각기 다른 우리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견차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다 보면 막연히 '너도 나와 같잖아'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또 나중에 진짜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갈등

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끝내 끊어터지게 만들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그 어떤 좋은 관계에서도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용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평소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노력해보자.

좋은연인/친구라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표현하지 않아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의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과정은 탐정 놀이를 하는 것과 닮아있다. 상대의 말, 미묘한 표정과 제스처, 상황적 맥락

같은 정보들을 가급적 많이 수집한 다음에 '이런 표정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황일 때 나는 XX한 상태였지'라며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험에 비해 추론하는 정도이다. 즉 마음 읽기 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정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추리하는 과정은 꽤 머리 아픈 과정으로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책임하게 힘든 짐을 지우는 일이다.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되면 내 마음을 알아주려 노력하던 친구/연인들도 금세 피로함을 느끼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자.

이미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해 자신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실제 변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IQ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비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금방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이고 노력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

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우울한 예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이어지고, 곧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 되기 마련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도, 그 사람도 우리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계를 위해 훨씬 많은 노력과 희생을 기울이고 관계 유지도 잘 하는 편이다. 반면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관계 초기에 조금만 서로 마음이 안 맞다 싶으면 '이 관계는 어차피 클라먹은 거라'며 지레 포기하고 금세 도망가버리곤 한다.

만약 이렇게 노력도 해보지 않고 관계를 깨버리기 일수라면, 좋은 사람을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놓쳤던 적이 있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보면 어떨까?

가로세로

①	②		③		④
	②	④			
④	⑤		⑤		
				⑥	
⑥	⑦	⑧		⑦	⑨
		⑧			

■ 이름:

■ 학과/학년/학년:

■ 연락처:

■ 가장 흥미를 느낀 기사:

■ 한성대신문사에게:

이번 가로세로 당첨자는 없습니다.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포럼소식

2014 여성인재포럼

- ▶ 일시: 5월 24일 (토) 09:00~18:00
-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
- ▶ 내용: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공한 벤처 CEO 4인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시간 / 다문화권 리더들과의 토론 / 글로벌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뷰티세션, 생활 속 제테크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제테크 세션
- ▶ 신청: 2014년 4월 28일(월) ~ 5월 14일(수) / 참가비 무료 / 여성인재포럼 홈페이지(http://www.whforum.com) / Tel. 02-3277-4061

문화기술(CT) 포럼 2014

- ▶ 일시: 5월 20일 (화) 09:00~18:30
- ▶ 장소: COEX 3층 E56 Hall
- ▶ 내용: CT대중화를 촉진하고, 우수 기술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포럼(전시) 구성 / 해외 유명 기술 사업화 유형 공유 토론의 장
- ▶ 신청: 2014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CT포럼 홈페이지(http://www.ctforum2014.co.kr) Tel. 02-2152-5018

대학 밖의 또 다른 대학을 찾아서

박도희 수습기자 14dohee@hansung.ac.kr
전희민 수습기자 aegis16@hansung.ac.kr
최해정 수습기자 hipo94@hansung.ac.kr
한지선 수습기자 mongrock@hansung.ac.kr

20대 청춘이여! 그대의 앞날이 다름이 아니라 닮아 버린 듯 바쁘고 지루한 일상 속에 파묻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면 한 발짝 물러나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어떨까? 대학 밖의 대학,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당신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뜨겁게 뛰게 해 줄 대학이 여기 있다!

열정대학

나의 꿈을 찾는 대학, 열정대학

만약 지금 독자의 앞에 종이 한 장이 있다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글을 쓸 수 있는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막막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그대에게, 혹은 꿈을 찾아 대학에 왔지만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20대 청춘들에게 열정대학을 소개한다.

열정대학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수강과목으로 만드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열정대학에서의 과목은 일반대학과는 다르다. '섹스학과'나 '셀프스피치학과'와 같은 아무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과목들을 배우는,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대학이다. 열정대학에서는 반대가 없다.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 주변에서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리고 다 같이 그것을 과

목으로 만들어 공부한다. 이것이 열정대학만의 매력이다.

열정대학을 설립한 유덕수 대표의 계기는 특별했다. 그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원하는 것,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얻은 후에는 공허함만 남았다. 그런 그를 바꾼 것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은 유 대표는 자기개발이 부족한 대한민국 20대들을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그들이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열정대학을 설립했다.

열정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기준은 남다르다. 열정대학의 입학신청서에는 출신 대학을 적는 칸과 스펙적 칸이 전혀 없다. 그리고 외모나 이력에 따른 편견이 생길 수 있어 면접도 보지 않는다. 개인의 잠재기가 아닌 본질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열정대

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절실함과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세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열정대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 ▲열정대학 : 하고 싶은 일을 과목으로 만들어 배우는 대학
- ▲모집시기: 15기 모집 종료
- ▲선발과정: 입학설명회 → 온라인 서류 접수 → 선발
- ▲등록금
신입생: 학생 20만원 / 직장인 25만원
재학생: 학생 10만원 / 직장인 15만원
- ▲홈페이지 주소: <http://passioncollege.com>
- ▲문의사항: 02-322-5309



GOGEEKS

나만의 진정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GoGeeks!!!

스펙을 뛰어넘어 스토리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스펙을 쌓는 공부에만 매진하며 여느 사람들과 같이 흑시 진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비영리 학생 단체 GoGeeks에 대해 소개한다.

GoGeeks에서는 1인 활동가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Geeks에서는 1인 활동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방법, 기획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GoGeeks에서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란 없다.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는 것이 GoGeeks만의 매력이다.

GoGeeks의 4명의 매니저인 GoGeeks 대표들의 GoGeeks 설립 계기는 독특했다. '위

인전 속 위인들을 보면 거의 20대인데, 현재 지금의 20대들은 왜 우리나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라는 발상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위인들처럼 대학생들이 똑똑하고 열정으로 사회를 재미있고 기분 좋게 만들어 보자 GoGeeks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프로젝트 24'라는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1인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는 GoGeeks의 대표로서 GoGeeks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GoGeeks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은 '암흑 속의 대화', '유기견과 후원자 1:1매칭', 'Off-sns-day'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oGeeks는 "학년이 올라가고 사회로 나가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줄어든다. 20대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갔을 때 보다 부담이 적어 별다른 걱정이 없었던 수 있고, 이런 도전 자체가 스

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토리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 자체가 나만의 스토리인 것이다.

꿈과 열정을 가진, 독특한 아이디어와 패기로 톱툰 뚝진 20대 대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GoGeeks에 지원하기를 바란다.

- ▲GoGeeks : 1인 활동가로서의 아이디어 실현과 역량을 키우는 비영리 학생 단체
- ▲모집시기: 2014 봄학기 모집 종료
- ▲선발과정: 입학설명회 → 온라인 서류 접수 → 선발
-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geeks.co.kr>



여행대학 TRAVEL UNIVERSITY+

가슴 뛰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배우다 여행대학

대학생이 되어서 여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를 타고 유럽 현지의 건물, 풍경, 사람들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는 달리 가슴을 뛰게 하는 여행이 있다면 어떠할까? 가슴을 뛰게 하는 여행,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여행대학을 소개한다.

여행대학의 12명의 멘토 중에 한 명인 문현우 멘토는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목표로 '아리랑 유랑단'을 결성하였다. 아리랑 유랑단을 통해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아리랑에서 고개를 넘듯이 순간순간의 고비를 넘으며 그 고개에 대해 힘차게 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경험을 멘티들에게 알리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여행대학은 단순한 관광의 목적이 아닌

여행을 배우고 인생의 의미, 가치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떠나는 방법을 배운다. 여행대학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데서의 지식과 멘토링을 받음으로써 여행에 대해 깊은 사고와 바른 방향으로써의 길을 알려 준다.

여행 대학은 12명의 멘토와 50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여행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운다. 사진, 기록 등 매력적인 학과가 있고 누구나 학과를 개설 가능하고 참가가 가능하다. 1학기 입학기간은 끝이 났지만 7, 9월에 2학기 모집한다.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특히 열정을 높게 본다. 문현우 멘토는 "여행대학은 전국이 하나의 캠퍼스이고 전국민이 여행을 무섭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것임을 인지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떠나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아지

기 전에'라는 말이 있듯이 체계적인 테마와 계획을 짜고 여행을 떠나 보고 싶으면 여행대학에 지원을 해서 보다 깊고 유익한 여행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 ▲여행대학 : 12인의 세계일주 여행 멘토단과 함께, 내가 가고 싶은 여행 꾸민 여행 기획과 제안을 통해 현실화 시켜보는 청춘을 위한 1학기 '여행 멘토링 프로그램'
- ▲모집시기: 1학기 모집 종료
- ▲선발과정: 서류접수 → 면접 → 발표
- ▲등록금: 30만원 (강연+교재+단체티+멘토링+입학여행+졸업여행)
- ▲홈페이지 주소: <http://cafe.naver.com/traveluniv>
- ▲문의사항: tu_info@naver.com



Soci知Factory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한 한걸음 Soci知Factory

요즘 사회적 기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층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이 기회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사회적 기업가에게는 개발한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소시지팩토리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 활동하는 동아리이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각

기수마다 자율적으로 사회적 기업 양성과 사회적 기업의 홍보를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소시지팩토리(Soci知Factory)라는 이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확산이라는 의미의 Society, 지식의 장의 특성을 드러내는 아카데미를 표현하는 知(알지),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작업장을 의미하는 Factory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5기까지 이어져 왔으며 각 기수마다 프로그램 활동은 다양하고 독창적이었다. 특히 5기는 소셜벤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다.

'billigi'는 소시지팩토리 5기 멤버가 창설한 사회적 기업으로 당시 멤버였던 권혜진 씨가 대표자로 있다. 'billigi'는 공유를 통해 개인, 사회 그리고 환경이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billigi'를 통해 빌려

주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공유하여 용돈도 벌고 빌리는 사람은 자주 쓰지도 않는데 사기엔 아까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소시지팩토리는 특별한 면점이나 철자 없이 열정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함께 활동 할 수 있으며, 곧 다음 기수 6기를 뽑을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인 소시지팩토리에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Soci知Factory : 사회적 기업에 대해 탐구 할 수 있는 동아리
- ▲홈페이지 주소: <http://www.socijfactory.org/>
- ▲문의사항: socijfactory@nesters.org / 010-9286-3742





1 대오서점 외부사진. 대오서점의 일부를 카페로 개조하여 운영중이다.
 2 구 서울역사. 지금은 '문화역서울 284'로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행사를 향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3 중구 저동에 위치한 삼일로 참고극장. 1975년 개관하여 지금까지 연극인들에게 실험 연극의 장이 되고 있다.



미래유산, 서울이 빛나는 이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란 말이 무색하게 최근 서울의 많은 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청춘들의 추억이 담긴 30년 전통의 빵집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거리에 수두룩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다. 현대인의 추억과 근·현대 서울의 역사가 담겨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최신트렌드 속에서도 복고가 유행하듯 대중은 새로움에 열광하는 동시에 옛 것을 그리워한다. 이에 서울시는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키려 한다.

미래유산 프로젝트

건물이 키 자랑 하듯이 점점 높아져가고 금요일 밤 클럽 조영처럼 화려해지는 서울과 자본 논리에 밀려 근·현대의 소중한 유산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대호 주무관(서울시 문화정책팀)은 "이대로 방치하면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울시는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근·현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이 후손에게 미래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미래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미래유산 발굴에서 보전, 관리에 이르기까지 특정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보호받는 문화재와 달리 미래유산의

보전은 시민이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변화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 유연한 관리방식으로 나아가갈 계획이다.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현대인의 추억이 담겨있다면 미래유산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공모, 민간단체 등을 통해 약 30여 개의 예비 미래유산을 수집하고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307개의 서울유산을 선정하였다. 서점, 다방, 이발소에서부터 여관과 목욕탕까지 시민들의 일상 이야기가 담겨있다면 무엇이든 미래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유산은 우리 옆에 있다.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사람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들과 함께한 존재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정된 미래유산 중, 대오서점과 딜쿠샤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오서점

경복궁 옆길을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서점이 하나 있다. 1951년도에 문을 열어 64년째 대오서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이 서점에서 얼마 전까지도 서점 주인인 할머니가 거주하였다. 그러나 100살이 넘는 한옥은 너무 낡아 거주공간으로 이용되기에 힘들어졌다. 현재는 대오 카페로 개조되어 운영되고 있다.

더 이상 책을 팔지 않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대오서점을 기억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방문해 사진을 찍으며 향수를 떠올리고 있다. 텔레비전이 귀해서 이웃거리 웅기종기 모여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서울의 그 시절을 느끼고 싶다면 대오서점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딜쿠샤

사직터널을 지나 웅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사이에 1923년에 지어진 빨간 건물에 있다. 복잡한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있어 미래유산인 딜쿠샤를 바로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딜쿠샤만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3.1운동이 일어난 당시 독립선언서와 제암리 민간인 학살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가 지은 건물이다. 개항 이후 지어진 서양식 주택 중에서도 평면구성과 외관이 독특한 딜쿠샤는 미국식 붉은 벽돌로 마감되어 있고, 아치형 창틀과 박공지붕 형태로서 건립시기, 건축양식, 벽돌 사용법 등 그 당시의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어 역사 및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미래유산 대오서점, 딜쿠샤 외에도 많은 미래유산이 있다. 친구들과 자주 갔던 떡볶이집이나 집 앞 슈퍼 등 '미래유산 프로젝트'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미래유산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들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있을 때 우리 옆에 미래유산이 있을 수 있게끔 우리들의 미래유산에 관심을 갖자.

학교C

학교C: 핵심교양C는 치명적인 매력의 문화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하는 기사 코너입니다. 교내 교양 중 가장 치명적인 강자인 핵심교양A, B와 같이 한성인이 교양을 쌓는데, 상식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뮤지컬을 아시나요

대학로 속 숨겨진 보석, 뮤지컬 보러가자!

1. 뮤지컬 빨래

대형 뮤지컬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작품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뮤지컬이 있다. 서울 달동네의 반지하방에 사는 나영과 불법 채류자 송룡고의 사랑 이야기 속 서울살이의 고단함을 다룬 뮤지컬 빨래. 공연 내내 힐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기간: 2014. 03. 11 ~ 2014. 09. 28
- 장소: 아트센터K네모극장
- 입장가: 전석 5만원
- 관람시간: 수: 오후 4시/8시
 목, 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4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공연 없음
 공연시간: 150분(인터미션: 15분)
-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1544-1555)
- 문의: 02)928-3362



2. 뮤지컬 김중욱 찾기

영화 김중욱 찾기의 원작인 이 뮤지컬은 영화와는 색다른 매력에 있다. 바로 1인 2역을 맡는 멀티맨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여자 주인공의 아빠가 되기도 하고 택시 기사가 되기도하며 심지어 선보는 여자가 되기도 한다. 멀티맨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궁금하다면 뮤지컬 김중욱 찾기를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 기간: 2014. 01. 14 ~ 2014. 12. 31
- 장소: 뽀뽀첼 씨어터
- 입장가: R석 4만원, S석 3만원, 수호천사석 4만원
 학생증만 있다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 관람시간: 화, 수, 목: 오후 8시
 금: 오후 5시/7시
 일, 공휴일: 2시/5시
 매주 월요일은 공연 없음
 공연시간: 110분(인터미션: 없음)
-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1544-1555)
- 문의: 02)744-4033



감정표현불능자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내면, 감정에 대해 회피하려는 것이다. 회피가 계속되면 자신 내면의 감정을 적절히 감지하지 못해,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사회생활에 장애를 만들 뿐 아니라 감정표현의 지나친 억압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차차 다양한 신체적 장애를 야기시킨다.

앞의 이야기들은 '감정표현불능증'의 이야기다.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인지체계에 상상력의 부재와 같은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에 결함을 보여서, 정서적 느낌과 신체적 감각을 변별하는 데에 곤란을 보이는, 일종의 방어기제적 성격이다. 그렇다. 많은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정도의 감정표현불능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ow are you?"란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1초의 고민도 없이 "I'm fine" 이러한 당신의 대답은 비단 주입식 영어교육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당신의 감정은 숨긴 채 'fine' 하다고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1분 1초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잘 표현하고 있나. 이에 어느 누구는 나에게 되물었다. "굳이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

매일 전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주위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한 명 꼭 있다. 긍정적인 표현력을 가졌다가보다, 자신의 기분이 좋고 나쁨을 때마다 바로바로 얘기하는 사람 말이다. 그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굳이 표현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그런 성향을 좋게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인색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이에 우리는 이 증후군의 많은 요인 중 몇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미성숙한 인격의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문화. 둘째로 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대학생에 대해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다. 고등학교 울타리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한꺼번에 주어지는 권한과 자격에 자유를 만끽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 이 때 그들에게 노출되는 새로운 환경 중 하나는 앞서 말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문화의 사회이다. 이 낯선 사회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뒤로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학생은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줄 어른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말 그대로 '알아서 잘' 드러내는 법을 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옳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How are you?